PREVIEW · 미 리 보 기

맨땅에서 시작하는

미국 목회

한인 1 세 목회자의 미국 교회 10 년 실전 가이드

이택환 (TK Lee)

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 Rockford, IL

이 파일은 본문 일부를 담은 미리보기입니다.

이 책에 대하여

아무 준비 없이 미국 땅에 섰습니다. 신학교는 신학을 가르쳐 주었지만, 미국 교회의 행정도, 심방도, 회의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먼저 지나온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그 10 년의 기록입니다. 성공담이 아니라 넘어지며 배운 것들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분들이 저처럼 혼자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책의 구성

6 개 파트 35 장, 부록 A~N. 총 274 쪽.

Part 1 부르심과 사역자의 삶

Part 2 현장 중심 사역 가이드

Part 3 미국 교회의 예배와 문화

Part 4 리더십과 교회 조직

Part 5 타문화권 목회자의 길

Part 6 교회와 지역사회

이 미리보기에 담긴 것

· 추천사 (9 인)

· 전체 목차

· 서문과 일러두기

· 본문 4 개 장 전문

8 장 목회 돌봄 · 9 장 어린이 사역

12 장 예배 절기 · 13 장 특수 예배

추 천 사

이택환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 연회의 자랑스러운 한인 목회자이다. 지난 10 년 동안 다양한 영어 회중 교회들을 섬기면서 교회 부흥에 힘써왔고, 현재는 연회의 가장 크고 건강한 교회 중 하나인 Christ UMC 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 나는 Christ UMC 가 소속되어 있는 북프레리 지방의 감리사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이택환 목사의 사역과 결실을 직접 경험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다.

미국은 기독교 인구가 격감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 사역은 무척 어렵다. 청소년들은 견신례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말을 따르며 교회에 참석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학업과 스포츠, 여러 과외 활동으로 삶이 바빠지기에 교회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대학을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집에 있더라도 이미 교회 생활을 멀리한 후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택환 목사는 청소년 사역을 꾸준히 성장시키고, 또한 없던 청년 그룹을 만들어 성장시키는 감사한 사역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에 이르는 모든 연령대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특출한 은사가 있다.

《맨땅에서 시작하는 미국 목회》는 이택환 목사가 다양한 교회와 지역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터득한 바를 바탕으로 쓴 안내서이자 목회 성찰이다. 예배와 설교, 평신도 지도력 양성, 목회자 자기 관리, 삶과 목회의 균형, 목회 돌봄, 가족 돌봄, 연령대마다 달리하는 사역, 지역사회와의 소통, 교회 행정,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의 구조까지 목회에 필요한 모든 주제가 다 담겨 있다. 각 장마다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목회를 많이 접해 보지 않은 사역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실용적 가이드가 매 장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가이드는 목회 경험이 이미 풍부한 사역자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

이 책은 신학생, 안수 과정 준비자, 목회 초년생, 그리고 현재 오래 목회하고 계신

목회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나도 미국 목회를 오래 했고 혼자서 좌충우돌하며 터득한 세월이 긴데,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이 책을 읽었다. 각 장마다 실전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실용적 안내가 담겨 있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책이다. 이런 좋은 책을 구상하고 집필할 수 있도록 이택환 목사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정화영 목사

북일리노이연회 북프레리 감리사

책을 덮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다. 이 책이 조금 더 일찍 우리 곁에 있었더라면, 많은 목회자가 덜 외롭고 덜 다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자 이택환 목사는 성공담을 앞세우기보다 실패와 회복, 관계와 돌봄, 예배와 행정의 실제를 몸으로 부딪치며 얻은 언어로 정직하게 풀어낸다. 무엇보다 이 책은 목회자를 성과를 만들어 내는 '사역 기계'가 아니라 돌봄과 쉼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또한 타문화·타인종 목회의 어려움을 개인의 부족함으로만 돌리지 않고, 문화와 제도,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읽어내려는 시선이 귀하다.

이 책은 미국 목회를 준비하는 이에게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고, 오랜 시간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이에게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위로와 다시 걸어갈 용기를 건넨다. 이처럼 정직하고 실제적인 목회의 길잡이를 우리에게 선물해 준 저자에게 깊이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 이아현 교수

Associate Professor of Pastoral Theology, Care, and Psychotherapy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Evanston, IL

연합감리교회 목사

저는 이택환 목사님을 2012 년 미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람의 계획이나 준비보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 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얼마나 신실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미국 목회 매뉴얼이 아닙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그리고 서로 다른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를 어떻게 빚어 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담은 목회의 기록이며 은혜의 간증입니다. 감리교회의 신학과 교회 정치가 제가 섬기는 개혁교회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 오히려 교단을 넘어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전하며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미국 교회의 다양한 시스템과 목회 문화를 실제 경험을 통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캐나다인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문화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결국 목회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회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책은 따뜻하고도 실제적으로 보여 줍니다.

어린이 사역부터 청소년, 성인, 그리고 담임목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겸손하게 기록한 이 책은, 미국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뿐 아니라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귀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 박광영 목사

토론토 벧엘 캐나다 개혁교회

Bethel Canadian Reformed Church of Toronto

현재 미국 교회에서 타인종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제 사역 첫해의 기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첫 회의의 당혹감부터 심방 자리에서 머뭇거리던 영어 기도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미국 목회의 현장이 놀랍도록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만일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책을 만났더라면, 훨씬 덜 외로웠을 것이고, 또한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미국 교회 사역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라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가 건네는 지도이자 위로로 이 책을 곁에 두시기를 권합니다.

— 우찬제 목사

Grace United Methodist Church, Rockford, Illinois

10 년간 미국 목회를 통해 경험했던 내용을 A 부터 Z 까지 세심하고 친절하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타교단 목사이지만 책을 통해 많은 정보를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미국 목회와 한인 목회의 본질이 같다는 것을 느꼈다. 미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성향은 한국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저자의 시행착오를 통한 다양한 경험은 새롭게 미국 목회를 하는 누군가에게 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미국 목회를 하면서 방향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 정기환 목사

오클라호마 이니드 순복음은혜교회

《맨땅에서 시작하는 미국 목회》라는 제목처럼,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며 얻어낸 살아 있는 현장의 증언입니다. 특히 미국 목회 현장에서 마주한 실패와 쉼,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저자의 고백은 성과주의에 익숙해진 오늘의 한국 교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정서와 문화, 신학적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목회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에, 이 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모든 목회자에게 따뜻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 경의현 목사

원주중앙감리교회

저에게 이택환 목사는 '유쾌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시절엔 원래 유쾌한 사람이어서 유쾌한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고 보니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한 영혼을 향한 진심이 치열하게 어우러져 목회 사역을 해왔기에 지금은 더욱 '유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20 년차 한국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택환 목사는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시하며, 미국 목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목회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바이블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 김영중 목사

꽃재교회 부목사

저는 미국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으로서, 이 책은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온 한국인으로서 미국 현지 교회에서 여러 실수도 하고 배워가는 데 오래 걸리는데, 이 책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 책은 제 개인적으로도 위안과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김태윤(요셉)

게렛신학교 M.Div 과정 중

미국 목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먼저 걸어간 선배의 발자국을 쫓아갈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는 책입니다.

— 박건웅 목사

늘사랑교회

8 CHAPTER

목회 돌봄 (Pastoral Care): 공감과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

사역 초반, 저는 심방을 '해결하러 가는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목회하며 깨달은 것은, 심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소에 관계를 쌓아 두는 시간이며, 그것이 여전히 목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심방의 '방식'에는 익숙해져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문화가 옳고 그르다기보다, 미국 교회 현장에서 특히 유의하면 좋은 점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하며**, 격식 있는 가정예배보다 편안한 대화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결을 미리 알아 두면, 좋은 마음으로 다가간 심방이 뜻하지 않게 부담을 주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사역 초반,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비장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명쾌한 영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능력 있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제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2 시간 30 분 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와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그저 잠자코 들으며 동조했습니다.

병실을 나올 때, 저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그 성도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그 실패 같은 방문을 통해 저는 목회 돌봄은 '해결(Solving)'이 아니라 **'함께 있어줌(Presence)'** 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심방을 '해결하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만나러 가는 시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바꿨습니다. 심방 후 반드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모장에 날짜, 방문 대상, 주요 나눔 내용, 기도 제목 정도만 간단히 적었습니다. 형식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쌓이자, 다음 심방에서 지난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내 이야기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심방일지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며 심방이 꼭 직접 방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교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처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미리

써놓고 복사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일에 빠진 교인들에게는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는 좋은 후속 조치(Follow-up)가 되었고,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리마인더(Reminder)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심방은 목회 돌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성도를 만나고 아픔의 현장에 함께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삶을 비로소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설교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삶의 정황을 알게 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이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은 그 어떤 화려한 설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한국 교회와의 차이점

한국의 심방 문화는 전통적으로 매우 적극적이어서, 대심방 기간을 정해 모든 가정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도시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약속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것은 큰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목회자가 모든 심방을 직접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었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심방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실용 가이드

1. 첫해, 관계 맺기의 기술: 사람을 얻는 시간 (심방)

- **스태프와 먼저 만나십시오.** 정기적인 스태프 회의 외에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만나십시오. 사역의 즐거움과 어려움,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에 카드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도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 **교회 지도자들과 식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혹은 두세 명과 함께 아침이나 점심을 먹으며 가족, 직장, 취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사역 이야기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때 더 깊은 신뢰가 쌓입니다.**
-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으십시오.** 노약자, 병약자, 미망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첫해에 반드시 직접 찾아뵙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룹 가정방문(Group Home Visitation)을 활용하십시오. 호스트 가정을 정하고, 그분들이 이웃이나 친한 교인 10~15 명 정도를 초대하여 간단한 다과와 함께 목회자를 소개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 가정을 한 번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기:** 전임 목사나 심방팀에 물어보아 노약자, 병약자, 미망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첫해에 반드시 직접 찾아뵙는 것이 좋습니다.

3. 심방의 원칙: 약속과 목적 공유

반드시 전화나 문자로 방문 가능한 시간을 먼저 묻고 약속을 잡으십시오. **"제가 다음 주 중에 잠깐 들러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언제가 편하신가요?"** 모든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4. 병원 심방: 최고의 기회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프라이버시의 장벽을 낮추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아플 때 찾아와 손잡아 주는 목회자는 평생의 기억에 남습니다.**





병원 심방 — 한 성도의 회복을 위해 곁에 머물며

※ 사진 속 인물,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얼굴 보호를 위해 모든 사역 사진은 의도적으로 약간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심방을 갔을 때, 한 성도님께서 "아버지가 DNR 사인을 하셨어요"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병원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을 따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5. 병원 심방 필수 용어 20 가지

용어	의미
ICU (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DNR (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거부.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
Hospice Care	호스피스. 치료가 아닌 돌봄과 평안에 집중하는 말기 환자 케어
Palliative Care	완화 치료.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
Vitals / Vital Signs	활력 징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Code Blue	심정지 등 응급상황을 알리는 병원 내 코드
Chaplain	병원 원목. 영적 돌봄이 필요할 때 연결해줄 수 있음
Prognosis	예후. 질병의 예상되는 경과
Discharge	퇴원
Stable / Critical	안정적인 상태 / 위중한 상태
NPO (Nothing by Mouth)	금식. 수술이나 검사를 앞두고 음식·물 섭취를 금함
IV (Intravenous)	정맥 주사. 수액이나 약물을 정맥으로 투여
Admission	입원
ER / Emergency Room	응급실
OR / Operating Room	수술실
Comfort Care	편안함에 집중하는 돌봄.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통증 완화 위주로 제공

용어	의미
Power of Attorney (POA)	의료 결정 위임권.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대신 결정하는 사람
Advance Directive	사전 의료 의향서. 환자가 미리 정해 둔 치료 방향
Terminal	말기. 회복이 어려운 단계
Visiting Hours	면회 시간. 병원·병동마다 정해진 방문 가능 시간

병원 심방에서는 **긴 기도나 설교보다, 손을 잡아주고 짧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린 후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What can I pray for you?)"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6. 심방 사역팀을 만들고 훈련하십시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는 목사가 모든 심방을 직접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팀을 만들어 심방 사역을 함께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은사가 있는 평신도를 선발하여 심방 사역팀을 만드십시오. **이들에게 심방의 원칙, 경청의 기술, 기도 방법, 그리고 Safe Sanctuary 정책(어린이·청소년·취약한 성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안전 지침 — 자세한 내용은 30 장)에 대해 훈련시켜야 합니다.** 목회자가 바쁜 스케줄이 있을 때, 훈련된 심방 팀원이 대신 방문하여 교회의 따뜻한 관심과 연결(Connection)을

전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심방 후 날짜, 방문 대상, 주요 나눔 내용, 기도 제목을 간단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이 기록이 쌓이면 다음 심방자가 이전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7. 위기 대응

심방을 통해 알게 되는 가정 폭력이나 심각한 우울증 등, 목회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지역의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911(응급상황),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Suicide & Crisis Lifeline 등의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있으십시오. 이는 돕는 것을 넘어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 ***관련 부록: 병원·임종 심방 시 쓸 영어 기도문과 표현은 부록 A(상황별 기도문)와 부록 I(자주 실수하는 영어 표현)를 참고하십시오.***

> **핵심 메시지**
> 가장 좋은 돌봄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 이번 장에서 할 일 3 가지

1. 이번 주 심방이 필요한 성도 3 명의 명단을 적는다.
2. 심방 전, 그 사람을 위한 짧은 기도문을 미리 준비한다.
3. 심방 후에는 나눈 내용과 기도제목을 간단히 기록한다.

9 CHAPTER

어린이 사역: 한 영혼이 온 가족을 부른다

처음 섬겼던 West Ridge 교회에는 어린이 사역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이 사역과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챕터에서 다루는 부모 사역과 지역사회 연결 전략이 지금 사역을 한 단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어른 예배 전에, 교회의 한 아이와 제 아들, 이렇게 **단 두 명**으로 어린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두 명을 위해 찬양을 틀고, 말씀을 준비하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마저 오지 않아 제 아들과 단둘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주 꾸준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맨 앞에서 시작하는 미국 목회

어린이 예배 (West Rdige, Hemenway, Christ UMC) — 작게 시작된 다음 세대 사역

※ 사진 속 인물,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얼굴 보호를 위해 모든 사역 사진은 의도적으로 약간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그 3 년 동안 저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매주 어린이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올 때마다 부모님께 직접 연락했습니다.** "오늘 아이가 정말 잘했어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 문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VBS(Vacation Bible School, 여름성경학교)및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열었습니다.** 연회의 Creative Ministry Fund(교단에서 창의적인 사역을 지원하는 지원금[그랜트, Grant] 프로그램 — 소속 감리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에 지원하여 3000 달러를 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4 주간의 무료 토요학교와 VBS 를 진행했습니다. 즉, 다양한 어린이 이벤트들을 작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가정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라며 하나둘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3 년 만에 어린이 사역은 30~40 명 규모로 성장했고, 주일 예배 인원은 70~80 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기존 예배인원 25 명).**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다음세대는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현재'를 살리는 동력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데려다주어야 하기에, **어린이 사역은 부모를 교회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미국 어린이 사역에서 배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자리를 먼저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간과 분위기가 먼저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방문하더라도 그 가정을 품을 수 있는 분위기가 없으면 정착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의 차이점

물론 교회마다 다르지만, 제가 경험한 결을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학교는 성경공부와 암송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미국 교회학교는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관계적', '경험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VBS 만 봐도, 한국이 학습적 요소를 좀 더 담는다면 미국은 게임, 만들기, 찬양 등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용 가이드

1. 예산이 없어도 시작하는 법: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West Ridge 교회의 첫 교육부

예산은 1 년에 500 달러였습니다. 어른 성경공부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사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외부 펀드를 찾아보십시오**. 교단이나 연회에는 창의적인 사역을 지원하는 지원금(그랜트)이 있습니다. 소속 지방 감리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2. 부모를 동역자로 만드는 법

마지막 날에 초대하라: 어린이 관련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하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부모님들을 초대하여 아이들의 발표를 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님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린이 사역은 곧 부모 사역입니다.**

3.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예를 들어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스몰그룹이나 활동을 인도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어른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단둘이 있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기본 원칙입니다. 둘째, 어른 한 명이 여러 아이를 혼자 맡는 상황도 되도록 피하고, 언제나 두 명 이상의 인증된 교사가 함께하는 **‘2 인 1 조(Two-Adult Rule)’를 지향합니다.** 한 아이가 화장실에 가야 할 때도 교사 혼자 따라가지 않고, 교실 문은 늘 열어 두거나 창이 있는 문을 사용합니다. 이런 장치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뿐 아니라, 봉사하는 교사와 목회자 자신도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안전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Safe Sanctuary 정책의 구체적인 6 가지 요소와 실행 방법은 30 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좋은 커리큘럼을 활용하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검증된 어린이 사역 커리큘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상황과 신학에 맞게 골라 변형해 쓰십시오.

- **Orange / 252 Kids (thinkorange.com):**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관계 중심' 커리큘럼.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자료가 강점입니다. 매주 영상·활동지·소그룹 가이드가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 **Group Publishing (group.com):** VBS 자료로 가장 유명합니다. 활동·체험 중심이라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고, 작은 교회도 따라 하기 쉽게 구성돼 있습니다.
- **Sparkhouse / Spark (wearesparkhouse.org):** 루터교 계열의 신학적으로 탄탄한 자료. 성경 본문 중심의 깊이 있는 교육을 원하는 교회에 적합합니다.
- **Deep Blue Kids (deepbluekids.com):** 연합감리교(UMC) 공식 어린이 커리큘럼. UMC 교회라면 교단 신학과 잘 맞아 활용하기 좋습니다.

- **무료·저예산 대안:** Ministry-to-Children(ministry-to-children.com)은 무료 수업안과 활동지를, Saddleback Kids 의 유튜브 채널은 무료 성경 이야기 영상을 제공합니다. 예산이 빠듯한 작은 교회에 유용합니다.
- 커리큘럼을 고를 때는 ① 우리 교회의 신학과 맞는지 ② 작은 교회도 운영 가능한 규모인지 ③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더 많은 추천 리소스는 부록 F 를 참고하십시오.

5. 비전을 넓혀라: 연합 VBS 와 순회 사역팀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작은 교회 두세 곳이 힘을 합쳐 연합 VBS 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자원과 재능을 공유하여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VBS 활동 —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고 즐기는 여름성경학교

※ 사진 속 인물,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얼굴 보호를 위해 모든 사역 사진은 의도적으로 약간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 아끼고 인력을 공유하며 함께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 — 이것이 바로 UMC 가 추구하는 커넥셔널리즘(Connectionalism, 교단 내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사역하는 원리) 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 ***관련 부록: 어린이 사역 관련 추천 리소스는 부록 F(추천 리소스)를 참고하십시오.***

> **핵심 메시지**
> 어린이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명의 아이를 위한 자리를 준비할 때, 그곳이 바로 부흥의 시작점이 됩니다. 3 년이 지난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을 걸어 나오는데 처음 그 한 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 교회 진짜 좋아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 이번 장에서 할 일 3 가지

1.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의 안전(Safe Sanctuary) 점검표를 확인한다.
2.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워 부르기 시작한다.
3.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 성장을 전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낸다.

12 CHAPTER

예배 절기: 시간 속에서 예수를 살다

나의 이야기

12 월 초, 저는 성탄절 준비로 분주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온통 보라색 장식이었고, 매주 촛불을 하나씩 켜는 대림절(Advent) 예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나? 그냥 즐겁게 성탄절을 기다리면 안 되나?'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반복하며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오실 왕을 기다린다'는 것이 단순한 절기 행사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 몸으로 느꼈습니다. 미국 교회는 **교회력(Liturgical Calendar —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1 년을 구성한 기독교 달력)** 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살아내며 신앙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인 시간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영적 리듬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현대 사회는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앙은 기다림과 묵상, 반복을 통해 깊어집니다. 교회력(Liturgical Calendar)은 우리를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도록 돕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교회력과 함께 알아야 할 개념이 **성서정과(Lectionary)** 입니다.

성서정과란 교회력의 각 주일에 맞춰 읽도록 정해진 성경 본문 목록입니다. **3 년 주기(Year A, B, C)로 구약시편서신서복음서를 순환하며, 교회력을 따라 설교와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교회력과 성서정과를 함께 활용하면 1 년 내내 예배와 설교, 교육이 통일된 주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 교회와의 차이점

제가 섬겼던 한국 교회들에서는 주로 성탄절과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큰 절기로 지켰지만, 제가 섬긴 미국 UMC 교회들은 **대림절, 주현절, 사순절, 성령강림절 등 전체 교회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단순히 행사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1 년 내내 예배와 설교, 교육이 통일된 주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신앙 교육 시스템'** 으로 작동합니다.

실용 가이드

아래 표는 주요 절기별 핵심 주제와 상징색,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씩 적용해 보십시오.**

절기	핵심 주제	상징색	실천 아이디어
대림절 (Advent)	기다림, 소망, 준비	보라색, 빨간색	매주 대림절 촛불 점화 (가정별로 돌아가며) / '빛'과 '오실 왕'을 주제로 4 주 설교 시리즈
성탄절 (Christmas)	성육신, 기쁨, 평화	흰색, 금색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성탄 전야 촛불 예배 / 지역 양로원·고아원 방문 및 캐럴부르기
주현절 (Epiphany)	나타남, 계시, 선교	흰색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예배'와 '선교'의 의미를 다루는 설교
사순절 (Lent)	회개, 자기성찰, 경건	보라색	재의 수요일 예배 / 미디어 금식, 한 끼 금식 등 구체적인 경건 훈련 제안
부활절 (Easter)	부활, 새 생명, 승리	흰색, 금색	부활절 칸타타 또는 특별 찬양 예배 / '소망'과 '회복'을 주제로 한 설교 시리즈
성령강림절	성령, 교회, 능력	빨간색	'성령'을 주제로 한

절기	핵심 주제	상징색	실천 아이디어
(Pentecost)			설교 및 기도회 / 교인들에게 빨간색 옷을 입고 오도록 격려
연중 시기 (Ordinary Time)	성장, 제자도, 일상	초록색 (생명과 성장을 상징)	성경 인물·교리·기독교적 가치 등 심도 있는 주제로 설교 / 평신도 제자훈련·성경 통독 프로그램 운영

유연한 적용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매주 교회력을 엄격하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절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에 교회의 특성에 맞는 주제 설교나 프로그램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추천 자료: 교회력과 성서정과를 따라 예배와 설교를 준비할 때 아래 책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연도별 성서정과(Year ABC)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Taught by Love: Worship Resources for Year A — https://amzn.to/4v31XgJ

Led by Love: Worship Resources for Year B —https://amzn.to/3QKvAVO

Gathered by Love: Worship Resources for Year C - https://amzn.to/4eObKkM

핵심 메시지

교회력은 1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시 살아내는 거룩한 순례의 길입니다. 절기를 따라 사역할 때, 목회자도 성도도 함께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 이번 장에서 할 일 3 가지

1. 올해의 교회력(절기) 달력을 한 장으로 정리한다.
2. 다가오는 절기 예배의 핵심 메시지를 미리 구상한다.
3. 절기마다 반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전통 하나를 정한다.

13 CHAPTER

특수 예배: 삶의 모든 순간을 품다

나의 이야기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 모두가 들떠 있을 때 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 Blue Christmas 예배를 기획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올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해 조용히 눈물 흘리던 한 성도님이 예배 후 제 손을 잡으며 "목사님, 오늘 밤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라고 말했을 때,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Blue Christmas 예배를 매년 준비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12 월 21 일 동지 무렵, 예배당 조명을 어둡게 낮추고 조용한 묵상 음악을 틀었습니다. 상실과 슬픔을 다루는 시편 말씀을 낭독하고, 고인을 기억하는 촛불을 켜는 순서를 넣었습니다. 설교는 짧게, 10 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이 공간 안에서 환영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고 한 장을 교회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에 붙였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웃들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특별 예배는 교회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정황, 즉 슬픔, 상실, 회개, 치유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는 교회가 단지 일요일에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 교회와의 차이점

한국 교회는 송구영신예배나 맥추감사절과 같은 고유한 특수 예배가 있는 반면, 미국 교회는 **Blue Christmas, Ash Wednesday** 처럼 개인의 내면과 감정을 돌보는 예전적인 특수 예배가 더 발달해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을 한 번에 지내는 한국과 달리, **어머니 주일(Mother's Day)과 아버지 주일(Father's Day)을 구분하여 기념**하는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 특수 예배를 경험해오신 분이라면, 아래 목록에서 아직 시도하지 않은 예배 한 두 가지를 골라 올해 처음 도입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용 가이드: 미국 교회의 다양한 특별 예배들

아래 예배들은 미국 교회에서 활용되는 특수 예배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 전통,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한두 가지씩 선택하여 도입하십시오. 처음 시도할 때는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Blue Christmas (슬픔을 겪는 이들을 위한 성탄 예배)

12 월 24 일 성탄 예배 날 전, 날짜를 정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어울리는 시즌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떠나보낸 분에게는 그 시즌이 오히려 더 차갑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에서 Blue 는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Blue Christmas 예배는 어둡고 차분한 조명 아래 조용한 묵상 음악과 함께 상실과 슬픔을 다루는 시편을 낭독하고, "슬픔 속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고인을 기억하는 촛불을 켭니다.

2. All Saints' Day (모든 성인의 날, 11/1)



All Saints' Day — 먼저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촛불을 밝히다

※ 사진 속 인물,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얼굴 보호를 위해 모든 사역 사진은 의도적으로 약간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든 성도, 특히 지난 1 년간 소천한 교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대부분 11 월 첫째 주 예배로 드립니다.** 소천한 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를 때마다 종을 치거나 촛불을 켜고, **"우리는 거대한 믿음의 행렬 속에 서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눕니다.

3. Ash Wednesday (재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로, 매년 날짜는 달라집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어주며 "Remember that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당신은 흙이며,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라고 선포하고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4. Maundy Thursday (성목요일 예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날을 기념합니다. **종의 리더십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Maundy 는 라틴어 'mandatum(명령)'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세족식보다는 세수식을 하기도하고, 성찬에 집중해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5. Good Friday Tenebrae (성금요일 어둠 예배)

어둠 속에서 하나씩 꺼지는 촛불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곱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의 깊은 고통과 침묵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Tenebrae 는 라틴어로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6. **Sunrise Easter Service (부활절 일출 예배)**

   새벽빛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아침 예배입니다.** 야외나 교회 마당에서 진행하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7. **Mother's Day / Father's Day Worship (어머니/아버지 주일)**

   부모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가족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다양한 가족 상황(한부모 가정, 자녀가 없는 부부, 부모를 잃은 성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의미도 꼭 생물학적 부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 곧 선생님이나 할머니, 고모처럼 어머니의 역할을 해준 모든 '마더 피겨(mother figure)'를 함께 기억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8. **Back to School (Rally) Sunday / Blessing of the Backpacks (새 학기 축복 예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과 교사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적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교회로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방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에게 blessing 벳지와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9. Graduation Sunday / Student Sunday (졸업 감사 예배)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생들의 여정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삶도 믿음 안에서 이어지기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회중이 함께 박수로 축하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됩니다. Student booklet 을 만들어, 우리 교인들의 가족 중에 졸업하는 학생들(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의 사진과 이름을 넣은 booklet 을 만들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0. Scout Sunday / Youth Sunday (스카우트/청소년 주일)

다음 세대가 예배의 주체로 서서 찬양과 말씀, 간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자라가고 있음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주일입니다.** 혹은 지역사회에 있는 스카운트 그룹과 연결해서 예배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11. Healing & Anointing Service (치유와 기름 부음 예배)

병든 자와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야고보서 5:14~15 의 말씀에 따라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UMC Book of Worship 에 예식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12. Pet Blessing (반려동물 축복식)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축복하며, 교회 마당이나 공원 등 야외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축복을 나누며, 지역 주민들과 친교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13. Laity Sunday (평신도 주일)

연중 시기 중 하루, 목회자가 강단을 완전히 평신도에게 내어주는 주일입니다. 평신도가 설교, 기도, 찬양 인도까지 전체 예배를 이끕니다. **5 장에서 다룬 Lay Speaker(평신도 설교자)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예배입니다.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온 교회라면, 이날이 그 열매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자리가 됩니다.**

14. Commitment / Stewardship Sunday (헌신 서약 주일)

연간 Stewardship 캠페인의 마지막 주일로, 성도들이 다음 해 시간·재능·재정 헌신을 공동체 앞에서 서약하는 날입니다. **Chapter 18 에서 다루는 Stewardship 과 연결됩니다.**

15. World Communion Sunday (세계 성찬 주일)

매년 10 월 첫째 주일, 전 세계 교회가 같은 날 성찬을 나누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UMC 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로, 커넥셔널리즘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16. Homecoming Sunday (귀향 주일)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성도들이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특별 주일입니다. 미국 남부 교회에서 특히 활발하게 드리며, **지역에 따라 교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실용 가이드: 특별 예배,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세요

위 예배들을 막상 준비하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특별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준비·진행 아이디어입니다.

1. 4-6 주 전: 달력에 미리 표시하고, 팀을 꾸리십시오.

특별 예배는 갑자기 준비하면 부담만 큽니다. 연간 달력에 미리 표시하고, 예배·음악·환대·홍보를 나눌 작은 팀을 만드십시오. 평신도가 주도하면 더 풍성해지고 목회자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2. 오감을 활용해 '경험'을 만드십시오.

특별 예배의 힘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에 있습니다. Blue Christmas 에는 조명을 낮추고 촛불을 켜십시오. 재의 수요일에는 실제로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으십시오(Imposition of Ashes). 부활절 일출 예배는 야외에서 해 뜨는 시간에 맞추십시오. 시각·촉각·청각이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3. 회중이 직접 참여할 '한 가지 동작'을 넣으십시오.

앉아서 듣기만 하는 예배보다, 직접 움직이는 예배가 오래 남습니다. 촛불 켜기, 기도 카드 적어 제단에 올리기, 세례 갱신으로 물에 손 담그기, 추모의 이름 부르기 등 회중이 몸으로 참여하는 순서를 하나 이상 넣으십시오.

4. '초대받지 못한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특별 예배는 전도의 통로입니다. Blue Christmas 는 상실을 겪은

이웃을, 졸업 감사 예배는 졸업생 가족을, 반려동물 축복식은 동네 주민을 교회로 부르는 자연스러운 계기입니다. 평소 교회에 오지 않던 이들을 콕 집어 초대하십시오.

5. 예배 후 '머무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특별한 감정이 일어난 예배일수록, 끝나고 바로 흩어지면 아쉽습니다. 다과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마음을 나누게 하십시오. 특히 Blue Christmas 나 추모 예배 후에는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과 짧게라도 눈을 맞추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6. 작게 시작해서 전통으로 키우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 한두 가지 특별 예배를 작게 시도하고, 반응이 좋은 것을 매년 반복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키우십시오. 반복되는 전통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 ***관련 부록: 특별 예배 인도 시 쓸 영어 예식 문구는 부록 B(예배 인도 필수 문구)를 참고하십시오.***

> **핵심 메시지**
> 특별 예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깊은 고통과 소망을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 이번 장에서 할 일 3 가지

1. 올해 드릴 특수 예배(Blue Christmas 등) 하나를 계획한다.
2. 특수 예배가 필요한 성도 그룹을 떠올려 본다.
3. 예배 순서지에 들어갈 핵심 기도문을 미리 준비한다.

미리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나머지 31 개 장과 부록 A~N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

· 부르심과 실패, 그리고 회복 (1~3 장)

· 여러 교회를 섬기는 다교회 사역과 목회자 가정 (4~6 장)

· 설교와 청소년·청년 사역 (7, 10~11 장)

· 세례·성찬·멤버십, 장례와 결혼 예식 (19~22 장)

· SPRC, 평신도 리더십, 교회 안전망 (26~30 장)

· 교단 구조, 타인종 목회, 지역사회와 디지털 사역 (31~35 장)

부록 A~N — 바로 복사해 쓰는 실무 자료

A 상황별 기도문 (수술 전, 임종, 회복, 위원회 등)

B 예배 인도 필수 문구

C 바로 쓰는 이메일·편지 템플릿

D 사역 양식 E AI 활용 가이드 F 추천 리소스

G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H 미국 목회 필수 용어집

I 자주 실수하는 영어 표현 J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K~N 문화 비교, 회의 영어 표현, 입교 초청 편지 등

함께 드리는 실전 자료

첫 90 일 부임 워크북 — 13 주 주차별 실행 체크리스트

Safe Sanctuaries 정책 템플릿 — 실제 사용 중인 정책 전문과 한글 안내

이웃에게 다가가는 21 가지 — 도심·교외·시골 상황별 아웃리치

혼자 넘어지지 않도록

《맨땅에서 시작하는 미국 목회》

이택환 (TK Lee) · 전 274 쪽